



강운태 제11대 광주시장이 지난 30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오형국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재직기념패를 받고 있다. <광주시 제공>



박준영 제 34·35·36대 전남도지사가 지난 30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권오봉 경제부지사로부터 재직기념패를 받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지사 인수위 보고서 뭘 담았나

# “출연기관 구조조정... 인구 200만 회복”

### F1, 누적적자 6000억원...협상 통한 해결 필요

### 신안 사파리 아일랜드, J프로젝트 삼포지구 보류

민선 6기 전남도지사 직무 인수위원회가 지난 30일 제출한 보고서에는 사실상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의 의중이 모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인수위원 인선, 업무보고, 현장 방문 등에 모두 참석한 이 당선자와 인수위원 간 ‘교감의 산물’이라는 의미다. 다만 도지사로 취임한 후 이 당선자가 정치·행정적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변여 여부는 판가름날 전망이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칼날’ 위에=이날 인수위의 발표 가운데 전남도의 유일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의 언급이 부각됐다. 지난해 6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여수 경도 골프&리조트, 한옥호텔, 팜골호텔, 천일염 판매사업 등 적자에 허덕이는 관광운영사업의 매각 또는 위탁을,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등은 매각 내지 지자체 인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19개 출자·출연기관 역시 유사·중복 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기능 강화, 연구 집적화, 빛가람 공동혁신도시로의 출연연구기관 이전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허상만 인수위원장은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경영에 책임져야 하는 정무직의 경우 임명권자와 함께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영평가, 비리 여부, 성과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언급은 인수위 내부의 물론 이 당선자 역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 박준영 체제 속에 길들여 있는 이들 산하 기관들의 ‘쇄신’ 없이는 이낙연 체제의 안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일부 작용했다는 것이 인수위 측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규모 프로젝트보다 내부 결속 강조=F1과 관련 인수위는 매우 낮은 국내 인지도, 근처에 휴양위락시설이 없다는 점, 중앙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누적 운영손실이 6000억원을 넘고 있어 ‘대회 중단’이 바람직하지만, 2016년 개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속 개최’, ‘대회 중단’, ‘2016년 개최’ 등 3개 대안을 검토했지만, FOM과의 계약에 따라 대회 개최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개최료 4270만 달러(2년 874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문제가 뒤따라 협상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회 중단’은 물론 ‘일부 대회 개최’ 때에도 경주장 수익을 올리기 위해 F1을 제외한 각종 국내외 자동차 대회 유치와 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은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J프로젝트 삼포지구 2단계 개발사업은 장기발전계획의 재수립과 동시에 건설한 투자 중간사 확보가 필요하며 보류의

견을 냈다. 삼포지구 2단계 사업의 최대 주주인 SK건설이 철수함에 따라 SK 건설 주식인 35.6%의 대체사업자 지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근 혁신도시 산단 개발로 인해 공사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구성지구는 지역 외부의 수요 유발에 초점을 두고 복합리조트와 연계한 초기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골프장 중심에서 탈피해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개발사업 활성화와 사업 초기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사파리아일랜드의 경우 타당성 보고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입장료 계산 방식이나 당선자의 비전과 견주어볼 때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과잉 수요 예측이라는 것이다. 적합성도 낮고, 경제적 타당성에도 상당한 의문점이 제기됐다.

영암·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안에 추진중인 경쟁장에 대해서도 사회적 건전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했으며, 스포츠 콤플렉스는 사업 타당성이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유사시설과의 중복 문제 등을 감안해 일단 중단하고 동일 부지에 대해 대체 사업 구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돌아오는 전남, 인구 200만 회복

단기 목표=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능을 일원화해 200만 인구 회복을 추진한다. 경제부지사에게 이음이 바뀐 정부부지사 직속으로 일자리정책실과 투자유치담당관 등 투자 부서를 배치하고 중소기업과 및 화학첨단산업단을 신설한다. 신성장 산업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팀과 풍력산업담당을 둔다. 동부출장소를 동부지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실질적인 제2청사 기능을 담당하며 본부장을 4급에서 3급으로 직급을 상향했다.

여성가족정책관, 인재양성과, 뉴미디어담당, 공직윤리담당이 신설되며 실질적 ‘도민청(道民廳)’ 기능을 위해 행정부지사 직속의 도민소통실을 두기로 했다. 이 당선자의 100원 택시와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공약 실현을 위해 도로교통과에 대중교통담당을 두기로 했다.

녹색성장정책실을 폐지하고, 녹색에너지담당관은 에너지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관광문화국은 관광문화체육국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보건복지국으로, 농림식품국은 농림식품국으로 변경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승진 임용시 도정 기여도, 청렴성, 직무수행능력, 리더십 등을 종합하고,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공정성을 함께 반영해 공공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발탁 인사는 일자리창출, 투자유치실적, 국고예산확보 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시·도지사 ‘열린 취임식’

### 광주시, 온라인 생중계...전남도, 누구든 입장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낮은 자세로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윤장현 신임 광주시장은 1일 ‘더불어사는 광주’라는 모토를 내걸고 민선 6기 시장에 취임한다. 광주시는 지난 30일 “초정장을 만들지 않았으며 외부 인사들을 별도로 초청하지 않고 광주시 공무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비용 0원의 검소하면서도 ‘시민시장’으로서의 의미있는 취임식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1일 오전 10시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윤 신임시장은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정수노

인, 주부와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 여성, 시장상인, 버스·택시기사, 미화원, 소방관 등 여러 분야의 상징성이 있는 시민 34명과 함께 취임선서를 할 예정이다. 이낙연 신임 전남도지사 취임식 ‘주인공’은 신임 도지사가 아닌 22개 시·군의 전남도 대표 22명과 도청 직원 자녀 25명이다. 단상에는 이들 47명이 앉고, 정작 취임하는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단 아래에 자리할 예정이다. 취임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초청자는 손학규 상임고문 등 새정치민주연합 인사, 전남도 산하 기관단체장,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누구든 입장이 가능하다. <채희종기자 chae@·윤현석기자 chadol@

## 광주시장 직속기구 신설안 개편 불가피

### 안행부 “규정 위반”

민선 6기 윤장현 호(號)의 추진동력이 될 광주시장 직속 기구 확대 신설안이 정무 규정에 가로막혀 무산되면서 일부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측은 지난 24일 대변인, 인권평화협력관, 참여혁신단, 사회통합추진단 등 4개 기구를 시장 직속으로 두는 내용을 담은 민선 6기 광주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시장 직속 기구 확대는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

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실·과·담당관은 행정부시장(광역시외의 경우)의 지휘·감독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결국 대변인을 제외한 인권평화협력관, 참여혁신단, 사회통합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들 3개 조직을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두면서도 실제 기능은 시장 직속 체제로 유지하는 방안과 특별 보좌관제를 신설하는 방안, 또 시장 직속이 어려울 경우 3개 조직을 2개로 통합해 시장과의 소통 기능을 집중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표기자 lucky@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 부작용: 수술 초기 야간 빛번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공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

NAVER **단비플라워**

##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